

## [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20)]

3)제111사단주둔지 ④이계오름  
길이 2백미터 대형 지하갱도 주목

이윤형 기자 [yhlee@hallailbo.co.kr](mailto:yhlee@hallailbo.co.kr)

입력 : 2006. 04.06. 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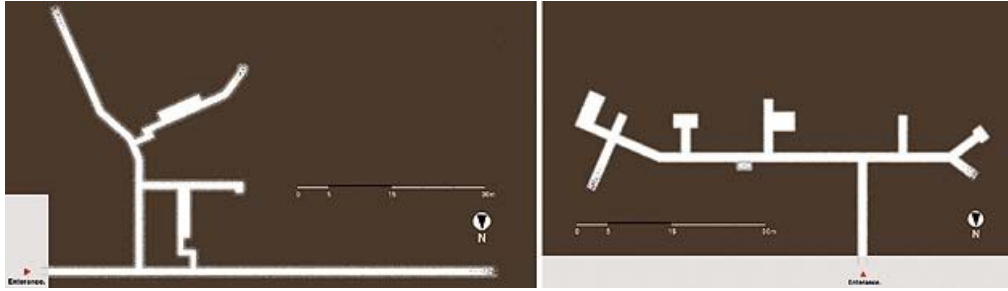
▲이계오름 갱도 진지 입구부분이 가파르게 경사져 있어 탐사단이 밧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 1백m 이상 갱도도 확인... 완성도 높아 관심

#### 오랫동안 훼손·방치 적절한 보호대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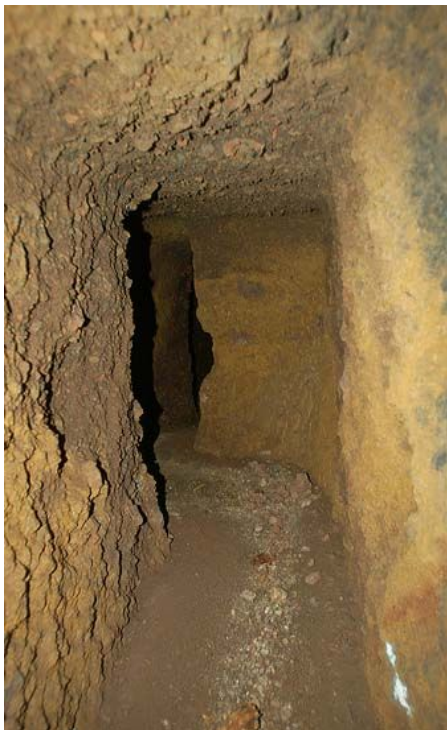
한경면 청수리에 소재한 이계(二鷄·離鷄)오름은 겉으로는 그저 고만고만한 오름(표고 168m)에 불과하다. 맞은 편의 저지오름이나 혹은 당오름·원물오름처럼 비고가 높거나 매끈하게 솟아있지도 않다. 탐사단도 내심 크게 기대를 하지 않은채 지난해 12월 10일 이곳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오름 7부 능선 지점에서 찾아낸 지하갱도는 총 길이가 약 190m 정도에 이르는 대형갱도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곳과 20m 정도 아래쪽인 5부 능선에서도 총길이가 100m 이상 되는 또다른 갱도도 찾아냈다. 탐사단은 세 차례에 걸쳐 이곳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갱도 3곳 등을 포함 진지흔적 등을 확인했다.



▲도면<1>(사진 왼쪽)과 도면 <2>

7부 능선(도면 1)의 갱도는 입구에서부터 이어진 주통로가 약 80m 정도 되는데, 주통로 왼쪽으로도 50m 정도 갱도가 연결돼 있다. 동쪽방향으로 난 입구 폭은 150cm, 높이는 1m 내외다. 입구는 일부 무너지고 훼손 등으로 인해 좁아져 있는 상태다. 입구 앞쪽으로는 교통호가 나 있다. 주통로(폭 115cm 내외, 높이 180cm 내외)의 끝부분은 위쪽으로 경사진데다 돌로 막혀있는 점으로 미뤄 정상부와 관통됐으나 후에 주민들에 의해 입구가 메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갱도를 따라 크고 작은 방과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고, 습기도 별로 없어 지금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다.



▲갱도진지 내부통로와 공간이 연결돼 있는 모습

5부 능선의 갱도(도면 2)는 입구 폭이 130cm, 높이가 170cm 내외로 7부 능선의 갱도와 달리 횡으로 갱도를 연결한 구조다. 입구 옆에는 또다른 입구가 나 있다. 이 갱도는 양쪽 끝부분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입구를 중심으로 오름 사면 좌우측에 또다른 갱도입구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에는 크고작은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계오름의 지하갱도는 가마오름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또 지금까지 조사한 갱도에 비해 완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구조 역시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방과 통로가 잘 연결돼 있다. 이 정도의 규모면 당시 이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 지휘부가 내부에서 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전적지 탐사 관련 일본측 자문위원인 츠키사키 마사유키씨(일본15년전쟁연구회 연구원)도 지난해 12월 특별취재팀과 함께 이 곳에 대한 조사에서 "갱도의 구조와 규모로 볼 때 일본군 연대본부급이 이 일대에 충분히 주둔할만하다"고 말했다. 실제 '제58군배비개건도' 등에 따르면 이계

오름은 '주저항진지'로 구축돼 일본군 제111사단 보병제244연대와 포병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임경재씨(71·한경면 청수리·현장인터뷰)에 따르면 이계오름에는 보다 큰 대형갱도가 있었다

고 증언한다.

이계오름에는 대형갱도 뿐만 아니라 파다가 중단한 소규모 갱도도 확인된다. 입구가 2개인 소규모 갱도는 5부 능선의 갱도와 20m 정도 아래쪽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는 Y자형 구조로 길이는 12m 정도된다. Y자 교차지점에는 90cm×90cm 크기의 수직환풍구가 나 있다. 아마도 이 갱도가 완성됐더라면 이계오름의 갱도는 전체적으로 3단구조로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계오름 갱도 내부는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계오름 지하갱도는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적절한 보호대책이 나와줘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윤보석·이윤희·표성준·이승철기자



▲이계오름을 찾은 탐사단이 대형 갱도진지 내부의 구조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갱도진지 내부에서 올려다본 5m 가량의 높이를 보이는 수직 환풍구

## [현장인터뷰]"그런 세상 다신 오지 말아야"

### 북군 한경면 청수리 임경재씨



임경재씨(1935년생·한경면 청수리 425번지)는 1945년 태평양전쟁 말기 당시 11세의 나이로 조수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나이가 어렸지만 일본말을 곧잘 해 아픈 사람 등을 데리고 가서 통역 역할 등을 했기 때문에 가마오름·이계오름의 갱도 및 일본군 주둔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임씨에 따르면 이계오름에는 탐사단이 확인한 갱도보다도 더 큰 갱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일제 패망후 3~4년 뒤까지 남아있다가 주민들에 의해 메워졌다는 갱도는 입구가 수직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도르레를 달고 2~3명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보일 정도로 컸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계오름에는 기마부대가 일부 있었지. 군마는 청수리에서 낙천리로 가는 중간지점의 소나무 숲인 '방에왓'에 매뒀어. 또 이계오름에는 전투병도 있었어. 그런데 일본군에 징용된 조선병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청수곶자왈에 돌로 막사를 짓고 그 위에 억새를 덮고 잠을 자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걸 봤지. 또 이계오름·새신오름의 일본군부대는 보급품이 거의 없는 등 가장 가난한 군대였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임씨는 또 당시 새신오름 일대에 주둔했던 기갑부대에 대해서도 증언, 관심을 끌었다.

"'본래남(南)동산'(본디 남쪽에서 맥이 왔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 소나무 밭에 일본군 탱크가 들어가는 굴이 있었고 실제 탱크 5대가 주둔했지. 일본군은 굴을 파고 그 위에 만주에서 싣고 온 통나무를 덮고 다시 흙을 씌워 굴이 안보이게 위장했어. 일본군 패전후 주민들이 그 통나무로 집을 지으려고 많이 가져갔는데 당시 구루마 하나에 통나무 한개를 못실을 정도로 컸어"라고 말했다. 임씨는 "그런데 일본군들은 패전직후에 구덩이를 파고 많은 양의 방독면과 옷 등을 꺼내서 불태웠다"며 "아마도 화학전을 대비했거나 가능한 부대였다"고 말했다. 또 '청산가리'와 같은 약품을 웅덩이에 쏟아놓어 뒀도 모르고 방독면 있는 우비 등을 가져갈려다가 죽을 뻔했다"고 당시의 기억을 고집어냈다. 새신오름의 기갑부대는 미군이 고산·모슬포·협재를 공격할 때 출동하기도 했다고 임씨는 덧붙였다.

임씨는 "약 70만평 정도 되는 청수곶자왈의 참가시나무(참가시낭)는 제주에서 제일 재질이 좋고 수량 또한 많았다"며 "당시 일본군들은 이 참가시나무를 베어다가 정뜨르·알뜨르비행장을 건설할 때 사용한 삼·곡괭이자루용으로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흘곳에서도 많이 조달했다는 것.

임씨는 이어 "협재 앞바다에서 일본전함 두척이 폭격을 받아 침몰했는데 당시 일주일 정도 탕

다”며 “나중에 3천명 정도가 몰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미군이 일본을 폭격할 때 미군 B29폭격기가 전부 제주상공으로 지나갔다”며 당시 “모슬포에 아카토모 뿐만 아니라 전투기도 있었고, 알오름의 고사포진지에서 포를 발사하기도 했다”고 60년전의 상황을 증언했다.

“그런 세상은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해. 당시 일년에 두 번 ‘청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만 되면 가재도구 등을 몽땅 마당에 꺼내 햇볕에 말려야 했거든. 그것을 위반하면 곤봉으로 몰매를 맞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꺼내놓으면 낫그릇이니 화로·수저 등을 전부 체크해. 그러면 어느 집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거든. 일본군들은 그래서 해방되는 해 낫그릇 등을 전부 징발해갔고 집에서 기르는 개 등도 군납했다”고 임씨는 당시를 회상했다.

※한라일보([www.hallailbo.co.kr](http://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